



5월7일
금요일

보도자료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정희	팀장	주경천	☎	286-6340
----	--------	----	-----	----	-----	---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선정기준 개선해 친환경농업 혁신 견인 - 사군 친환경농업 시책평가 신설, 상사업비 2억 원과 시상금 1천만 원 지급 -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변화혁신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규정」의 선정기준을 개정해 (2021. 4. 29. 시행)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의 혁신과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한 시군과 농업인 등을 적극 발굴해 농업분야 그린뉴딜 정책의 롤모델로 전파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대상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녹비작물 파종비율 등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등 정량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지표에 정성평가를 신규 도입해 **사군의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우수사례와 맞춤형 친환경농업 활성화 시책을 평가**하고, 저탄소·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농업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올해 시상기준에 따르면 **4개 분야 총 13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으로 ▲ 기초자치단체 분야 4점(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분야 9점(재배·생산, 가공·유통, 친환경축산 / 부문별 최우수상 1, 우수상 2)이다.

기초자치단체 분야 수상 우수 시군에는 **상사업비 2억 원과 시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세부 평가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분야의 경우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 친환경농업 여건 조성 ▲ 친환경농업 활성화 시책 등을 평가에 중점 반영하고,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분야의 경우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 경영안정 ▲ 친환경농업 공헌활동 등을 평가해 반영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11월 말까지 수상대상자를 시·군에서 추천받아 각 분야에 대해 평가한 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업대상 수상자를 12월 중 최종 선정, 2022년 1월 친환경농업 전진대회 행사장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온난화와 탄소감축 등으로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의 변화혁신과 확산에 기여한 2021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적격자를 추천하는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05년 4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시상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친환경농업에 공헌한 우수 시군과 농업인을 시상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해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 1번지로서 전라남도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